

건협, 영진전문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식 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와 영진전문대학(학장 최달곤)은 지난 2월 16일, 대구영진전문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통합메세징시스템(UMS) 구축 및 산학협력에 따른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통합메세징시스템은(UMS)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협회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유·무선 전화, E-mail, 우편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 발송 및 홍보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예약자 관리, 수검자 관리, 검진자 사후관리 및 회원 관리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진전문대학은 산업자원부 지정 지역기술혁신센터 주관 대학으로서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11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을 달성한, 국가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전국 1위로 판정 받은 학교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희망2005 이웃돕기 캠페인' 참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의 '희망2005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으로 모아진 성금과 직원 성금을 기탁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연말연시 불우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나눔과 참여의 정신을 공유하고 이웃사랑의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동참해오고 있다.

부산지부, 제18회 북극곰수영대회 의료지원센터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는 지난 1월 30일 지역축제인 제18회 북극곰수영

영대회에 참가하여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참가자를 대상으로 비만도, 혈압 등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대회 도중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구급 처치와 수술을 전담하는 운영요원을 비치하여 부산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으로 얻었다.

건협 기생충 전시관, 지역주민 호응 좋아...



▲ 기생충 전시관을 견학하고 있는 강서구 우람유치원생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개관한 기생충전시관에 최근 방학을 맞아 지역주민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기생충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전시관이며, 자라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과 관심 있는 국민들의 건강교육 및 기생충 퇴치의 역사적인 산 교육장으로써 지역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건협, 건강증진실무자 회의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월 17일 ~18일까지 대전 흥인호텔에서 건강증진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협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과 지부별 여건 및 문제점 등을 적극 발제, 본·지부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개선토록 함으로써 타기관과의 차별화된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